

WEEKLY REPORT

#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50**  
NOV 6 2020

발간년월 2020년 11월 6일 (통권 제150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김지영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역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 주요 동향

- 북극권 기온 상승으로 마려 관심, 무역에서 안보로
- 러시아, 항만 개발 사업 5건을 국가 계획에서 제외
- 2021년 북극 항로를 통한 수산물 수송 4배 증가 전망
- 극동 투자유치 수출지원청, 올해 민간투자 유치 성공

## 주요 통계

- 2020년 8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0년 8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20년 8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 주요 동향



### 북극권 기온상승으로 마려 관심, 무역에서 안보로

#### ■ 러시아 정부의 북극권 정책 변화<sup>a)b)</sup>

- 지구온난화로 올해(2020년) 북극항로 해빙 기간이 유례없이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해당 지역의 무역로가 전통적으로 자국 영해로 보고 있기에 북극항로의 안보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반면, 북극 공해의 해빙이 가속화됨에 따라 러시아의 쇄빙선단의 필요성이 감소. 해당 해역에서의 온난화 가속화로 다양한 국가들이 러시아의 도움 없이 항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자체적으로 쇄빙선 개발, 북극항로를 통항하는 선박의 수의 증가로 미국 정부 또한 러시아 활동에 관하여 긴장도를 높이고 있는 등 러시아 정부는 해당 해역에서의 소유권 유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 안보리(Security Council)내 모스크바 중앙 정부의 주요 관리들 및 지역 관계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북극위원회를 창설하는 등 단순히 북극의 경제발전을 논의하기보다 해당 지역에서의 국가안보를 포함하여 대응하고자 함

사진. 북극관련 러시아 주요인사



자료: <https://thebarentsobserver.com/en/2020/08/security-strongmen-take-key-role-russian-arctic-policy?fbclid=IwAR0oJdfUkQLgcWq9vJ8HpbF8DsiTUhOZFTIcAAc5wRMkH8lwCkwovIqJjbo>

## ■ 북극이사회 조직 성향 변화에 우려<sup>b)c)</sup>

- 새롭게 창설된 북극위원회의 수장은 푸틴 대통령의 오랜 2인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첫 취임사에서 ‘해당지역의 경제발전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북극과 북극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행동은 러시아의 국가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필요 수단을 동원할 것임.’이라고 전하였음

사진. 러시아 안보리 부위원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자료: <https://jamestown.org/program/as-arctic-warms-moscow-increasingly-shifts-focus-there-from-trade-to-security/>

- 전문가들은 해당 취임사가 마이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극 이사회 성명서(2019년 5월)를 겨냥한 발언으로 판단하고 있음
- 북극이사회가 창설될 수 있던 근간인 오타와 선언문(1996)에 군사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북극 이사회가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북극이사회 고위급회담에서 러시아가 북극권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긴장도를 더는 높이지 않기 위해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2021년 5월 러시아는 아이슬란드로부터 북극이사회 의장국 역할을 위임받을 예정. 지금까지 북극이사회는 환경보호, 기후변화, 원주민, 경제 관련 이슈들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군사 안보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음.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이 북극권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도가 고조되어 러시아가 해당 지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극이사회 의장국 지위를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 북극에서 마러 갈등 유발 3가지 현안<sup>b)</sup>

- 첫째, 러시아 정부가 타국들과 갈등을 줄이고자 북극항로의 이용제한 연장계획 철회조치를 되돌릴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하여 빙해 구역이 축소되고 있는 북극항로의 양쪽 끝 지역에서

긴장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음

- 둘째, 러시아 정부가 광범위한 북극권 지역의 소유권을 국제적 인정을 받기 위해 압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음. 특히 북극해 심해저를 포함하여 북극점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확장구역의 연장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큼. 미국이 해양법(UNCLOS)를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해당 이슈에 관련하여 의견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셋째, 러시아가 의장국 지위를 이용하여 중국을 북극이사회 옵서버가 아닌 정회원국으로 가입을 인정하는 방안. 중국 정부는 ‘근 북극권 국가’라고 스스로 주장하며 정회원국으로서 가입을 원해왔으나, 다른 회원국들이 정식 회원국으로의 가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해 왔음.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국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사진. 러시아 핵추진 쇄빙선



자료: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0/jun/09/trump-icebreakers-bases-arctic-antarctic-polar>

#### ■ 마러 쇄빙선 전단 구축 경쟁 돌입<sup>다)</sup>

-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극지 자원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쇄빙선과 기지건설을 지시하였음
- 2029년까지 최소 3대의 대형 쇄빙선 건조 및 4개의 지원기지(미국영토 2곳, 해외기지 2곳) 건설 방안을 60일 내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극지 미국 국익 수호’ 행정명령을 지시
- 푸틴 대통령 또한 북극권에서 러시아의 우수성을 유지하기를 지시하여 새롭게 쇄빙선 함대

를 구축할 것을 지시.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는 소련 시대에 사용했던 각종 군사시설을 다시 개방하고 있음. 지난 9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핵 추진 쇄빙선을 건조하였으며 북극함대는 향후 최소 13대의 중형 쇄빙선을 보유할 예정

- 현재 미국은 2척의 쇄빙선(대형 1척, 중형 1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총 40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경호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klee88@kmi.re.kr/051-797-4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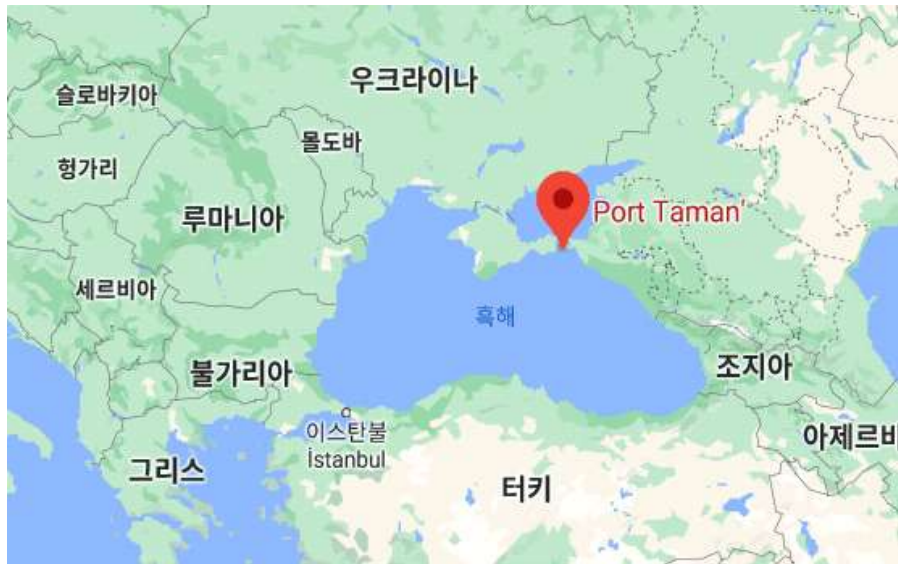
---

#### 참고자료

- a) <https://www.themoscowtimes.com/2020/11/02/russian-arctic-sea-fails-to-freeze-a71932> (검색일: 2020년 11월 6일)
- b) <https://jamestown.org/program/as-arctic-warms-moscow-increasingly-shifts-focus-there-from-trade-to-security/> (검색일: 2020년 11월 6일)
- c) <https://www.state.gov/looking-north-sharpening-americas-arctic-focus/> (검색일: 2020년 11월 6일)
- d) <https://www.marinelink.com/news/putin-pledges-russian-superiority-arctic-482939> (검색일: 2020년 11월 6일)
- e)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0/jun/09/trump-icebreakers-bases-arctic-antarctic-polar> (검색일: 2020년 11월 6일)

## 러시아, 항만 개발사업 5건을 국가 계획에서 제외

그림. 타만 항만의 위치



자료: 구글맵 자료

### ■ 타만 항만의 건화물 전용 터미널 및 자루비노 항만의 터미널 건설 사업을 포함한 일부 사업을 인프라 현대화 및 확장 종합계획에서 제외<sup>a)</sup>

- 안드레이 라브리스체프(Andrey Lavrishev) «로스모르포트» 사장은 타만, 자루비노 외 5개 프로젝트는 현실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아 터미널 건설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제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로스모르포트는 결과적으로 타만의 건화물 전용 항만 건설 사업은 종합계획에서 제외되어 중단되었지만, 투자자가 나타날 경우,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투자자들 중 '메탈로인베스트(Metalloinvest)'만 남아있는 상태라 항만을 건설할 수 없다고 전함
- 2019년 7월 메탈로인베스트사는 타만 항만의 새로운 터미널을 통해 들어올 광물을 처리하기 위해 물류업체인 '울트라마르'와 계약을 체결했음. 메탈로인베스트는 연간 250~300만 톤 규모의 화물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음<sup>b)</sup>
- '쿠즈바스라즈레즈우글랴'(Kuzbassrazpeuglya)와 SUEK가 타만 항만에 두 개의 터미널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석탄 가격이 하락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타만 항만의 예상 물동량이 4배 가까이 하락함
- 그 결과 타만 항만 투자에 대한 사업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 국가 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됨

## ■ 러시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우선순위화해 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sup>a)</sup>

- 또한 '러시아 항만' 연방 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이며, 무즈카 만의 현 수용력 2,400만 톤에 1,600만 톤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용력을 제고하는 사업인 '달트란스 우굴' 프로젝트와 같이 새로운 터미널 건설 및 확장 사업을 새로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 그 외에도 바니노 항만의 '달네트란스우글랴'(Dalnetransuglya) 터미널 확장 사업을 포함시켰음
- '러시아 항만' 연방 프로젝트의 목적은 극동지역, 북서지역 볼가-카스피해 지역, 아조프-흑해 지역의 항만을 포함한 러시아 항만의 처리능력을 13억 톤까지 증가시키는 것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66)

---

### 참고자료

a) <http://www.morvesti.ru/news/1679/85579/> (검색일: 2020년 11월 03일)

b) <https://www.rbc.ru/business/28/08/2020/5f4917099a79470e88f4cd3e> (검색일: 2020년 11월 03일)

# 2021년 북극항로를 통한 수산물 수송 4배 증가 전망

## ■ 북극항로를 통한 수산물 수송이 2021년 4배로 증가할 전망

-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북극항로를 따라 극동 지역의 수산물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안 수립을 요청했음
  - 이에 따라 캄차카에서 북극항로를 통해 러시아 중부 지역으로 수산물을 운송하는 문제가 개선되었음
  - 블라디미르 솔로도프(Vladimir Solodov) 캄차카 주지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올해는 북극항로를 통한 수산물 운송이 1회 진행되었다고 언급함
  - LASH선 ‘세브모르뿌찌(Sevmorput)’호는 올해 204개의 컨테이너와 5,500톤의 수산물을 운송했음
  - 러시아 로사톰(Rosatom)사에 따르면, ‘세브모르뿌찌’호는 2021년에 북극항로를 따라 극동 지역에서 수산물을 운송하기 위한 4번의 항해가 예정되어 있음
- \* LASH선(lighter aboard ship)이란 대형 부선 (lighter)에 화물을 싣고, 여러 개의 부선들을 본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인데, 이 방식은 선체의 가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갠트리 크레인을 상갑판에 설치하여 수면위로 하역함으로써 항만시설이 없는 항구에도 하역작업이 가능<sup>a)</sup>

그림. 로사아톰플롯의 세브모르뿌찌호



자료: <https://www.atomic-energy.ru/news/2020/09/01/106460>

a) 사이버해양전시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32943&cid=49355&categoryId=49355>

## ■ 북극항로를 통한 물류 잠재력 개발은 캄차카주 경제 회복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

-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주지사는 캄차카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찾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극항로를 활용해 캄차카의 물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함
- 현재 캄차카 정부는 로사톰사와 수산물 운항을 위한 문제를 협의 중임. 그중 하나는 선박에 다시 물품을 적재해 오는 것임
- 재적재가 가능할 경우 캄차카뿐만 아니라 추코트카, 마가단, 사할린까지의 수송비용을 절감할 있음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65)

---

### 참고자료

- a)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chislo\\_reysov\\_dlya\\_postavki\\_ryby\\_po\\_sevmorputi\\_uv\\_elichitsya\\_do\\_chetyreh\\_v\\_2021\\_godu.html](https://www.korabel.ru/news/comments/chislo_reysov_dlya_postavki_ryby_po_sevmorputi_uv_elichitsya_do_chetyreh_v_2021_godu.html) (검색일: 2020년 11월 2일)
- b) <https://www.atomic-energy.ru/news/2020/09/01/106460> (검색일: 2020년 11월 2일)

# 극동투자유치 수출지원청, 올해 민간투자 유치 성공

## ■ 연간 민간투자의 13% 초과 달성<sup>a)</sup>

- 극동개발부 산하에 있는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은 680억 루블의 민간투자를 유치했음. 이는 2020년에 계획했던 규모보다 13.3%가 넘는 수치임
-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장 레오니드 페투호브는 “2020년 극동개발부 계획은 민간투자량 600억 루블 유치였으나, 10개월 동안 680억 루블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했음
- 극동에서 진행되는 주요 투자프로젝트는 운송업, 광산업, 석유화학업임
- 올해 가장 큰 난항은 내년 1월까지 투자자들에게 민자유치사업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임

## ■ 레오니드 페투호프 청장 “극동 투자는 국제 브랜드가 되었다”<sup>b)</sup>

- 레오니드 페투호프는 러시아 국영 통신사 TASS 인터뷰에서 “러시아 극동에서 경제특구 제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가 실행되어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투자비용 증가, 마감시기의 지연, 운송중단에 따른 추가비용, 이주 노동자 제한, 해외 장비 공급 중단으로 이어져 일부 투자 프로젝트가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언급했음
- 그러나 성공사례로 11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유즈노사할린스크 IT파크를 들 수 있음. 에너지, 운송, 해양 산업에 인공지능, 가상현실, 5G 기술, 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며, 이미 112개의 회사가 입점해있음
- 코로나19의 여파로 러시아 국내 극동지역 관광은 60% 정도 하락했지만, 극동투자지원청은 관광 유치를 위해 캄차카에 대규모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극동 지역 간 크루즈 노선 개발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했음
- 극동투자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극동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가 줄어들면 가시적인 경제성장을 가져다 줄 곳이므로 투자자들을 잘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은 투자사업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임. 지원 조치를 위해 투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들과 대화를 통해 추진력을 잃지 않을 것이며 올해의 과업은 투자자들의 민자유치사업 계약을 이끄는 것임

이하선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hasunlee@hotmail.com)

---

#### 참고자료

- a) <https://tass.ru/ekonomika/9833677> (검색일: 2020년 11월 02일)
- b) <https://tass.ru/interviews/9820379> (검색일: 2020년 11월 02일)



## 주요 통계



표. 2020년 8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9/2020 증가율
극동지역	13.43 (+6.6%)	5.69 (+0.3%)	19.44	(+4.3%)
북극해	3.46 (-6.9%)	5.65(-9.6%)	9.11	-8.8%
발트해	9.1(-1.9%)	8.97(-6.3%)	18.07	-5.3%
아조프-흑해	11.46 (+11.0%)	10.67 (-11.0%)	22.13	-3.0%
카스피해	0.27 (+25.4 - %)	0.42 (+6.0%)	3.5	+13.5%
합계	38.04 (+4.2%)	31.4(-7.7%)	69.23	-2.4%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299981/>(검색일: 2020년 10월 28일)

b) <https://portnews.ru/news/298567/>(검색일: 2020년 10월 28일)

표. 2020년 8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46,789.3	50,046.8	346.3	1,508.4	347,135.6	51,555.2
광물 제품	1,125,185.8	9,016.0	26,106.4	47,079.8	1,151,292.3	56,095.8
연료 및 에너지 제품	925,173.9	7,156.1	117.4	0	925,291.3	7,156.1
생고무 및 화학 제품	5,232.6	64,142.3	763.6	529.0	5,996.2	64,671.4
가죽원료, 모피 제품	2.4	1,918.1	3.1	6.1	5.5	1,924.2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79,337.4	5,863.6	476.4	57.1	79,813.8	5,920.7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268.4	44,589.4	161.8	518.1	430.2	45,107.4
금속 및 금속 제품	32,784.4	54,658.4	337.3	1,345.0	33,121.7	56,003.4
기계류	225,344.8	332,103.3	333.6	774.7	225,678.4	332,878.0
기타	106,086.1	41,164.8	37,907.8	394.2	143,993.9	41,559.0
합계	1,921,031.2	603,502.7	66,436.4	52,212.4	1,987,467.6	655,715.1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검색일: 2020년 10월 29일)

표. 2020년 8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톤	천,달러
선어,냉장어	2	6.8	-	-	-	-	-	-	1.9	6.8	-	-
냉동어	132,384	170,956.9	189	843.7	0	0.0	-	-	132,443.9	171,019.4	229	881.8
연어류	13,044	44,645.8	-	-	0	0.0	-	-	13,043.7	44,645.8	-	-
넙치	488	2,185.2	-	-	-	-	-	-	488.0	2,185.2	-	-
가자미	1,581	895.9	-	-	-	-	-	-	1,581.4	895.9	-	-
가자미류	2,447	1,896.2	-	-	-	-	-	-	2,466.7	1,912.7	-	-
청어	13,831	8,485.7	-	-	0	0.0	-	-	13,831.1	8,485.7	-	-
대구	6,503	15,119.0	-	-	-	-	-	-	6,503.4	15,119.0	-	-
명태	59,073	59,832.9	-	-	0	0.0	-	-	59,112.6	59,878.9	-	-
농어	8	32.2	-	-	-	-	-	-	8.1	32.2	-	-
간, 곤이 (어란)	1,332	88,821.7	-	-	-	-	-	-	1,332.2	5,893.3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897	1,326.3	-	-	-	-	-	-	897.3	1,326.3	-	-
생선 필렛, 어육	4,442	11,859.5	79	216.8	0	0.0	-	-	4,441.5	1,859.5	79	216.8
건어, 훈제, 염장, 어분	19	130.8	265	1,546.3	0	0.0	-	-	18.9	130.8	265	1,546.3

갑각류	5,881	91,187.3	34	225.4	-	0.0	-	-	5,880.9	91,187.3	34	225.4
계류	4,911	82,929.8	-	-	-	0.0	-	-	4,910.7	82,929.8	-	-
조개류	5,468	14,563.3	-	-	0	0.0	-	-	5,467.6	14,563.3	-	-
가리비	137	753.2	-	-	-	-	-	-	137.2	753.2	-	-
오징어류, 문어류	4,784	8,207.9	22	132.0	0	0.0	-	-	4,784.0	8,207.9	22	132.0
수산 무척추 동물	782	3,256.1	-	-	0	0.0	-	-	782.4	3,256.1	-	-
해삼류	346	818.0	-	-	0	0.0	-	-	346.0	818.0	-	-
성게류	436	2,438.1	-	-	-	-	-	-	436.4	2,438.1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gov.ru/folder/230467>(검색일: 2020년 10월 28일)